

수도원 1박 2일 기도 체험기



김영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곳곳이 살아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감당이 되질않았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세상의 방법을, 경우의 수들을 상상하며 나락 끝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과 혼란을 정리하려면 내 삶의 상자 밖으로 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 여자 혼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할 수있는 기도원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궁리끝에 (김목사님 내외분께 걱정을 끼치는것 같아 송구스럽기는 했지만) 개신교수도원(PAM)에서 1박 금식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승락해 주셨습니다.

수도원의 3층 작고 아늑한 기도실.

지난 10여년 수도원성경공부로, 수도원의 크고 작은행사로 수도원 방문은 잦았지만 이 기도실은 고작 두번째라는것이 조금은 민망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있는것 다해보고 진흙탕 흙투성이, 여기 저기 멍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야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떼쓰러 오는곳...

내가 부를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내편이 되어 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때, 주님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곤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소서. 시편 4:1

주님의 재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들을 펼쳐 놓고 불이 내려 오기를 기다립니다. 시편 5:3

누구에게인지도 모를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억울함, 노여움, 두려움을 줄줄이 끝도 없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러

나 하나님은 묵묵부답, 듣고 계시지 않으신 것인지, 어이없어 한심해 하시는 것인지, 점점 민망해지고 초조해져 왔습니다. 탈진된 상태로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려고 온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에 다시 무릎 꿇어 보지만 기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참을 찬송가를 펼쳐 읊조렸습니다.

마음의 요동이 잦아들었습니다.

기도 노트를 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러 왔는지 한줄 한줄 적어봅니다. 그리고 시편을 또박 또박 곱씹으며 읽어 내려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시편 119:169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힘을 주셨으며 내가 원하는대로 고난 중에 담대히 위풍당당 서게 하지는 않으셨으나 요동하면서도 실족치 않고 버틸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고작 1박 2일의 기도의 힘으로 2년을 버티었으니 한도가 초과되어 다시 위태 위태한 나날을 보내며 주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한 요즈음입니다. 늘 목말라 하면서도 시간에 쫓겨 미루었던 1박 2일 금식기도로 다시 재충전해야하겠습니다. 